

당국 “조용한 전파 많아 감소세 느려”

올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전국 거리두기 2단계 “내년 추석 상황변화 희망...백신·완전 접종기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많아 국내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가 더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중인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실한 감소세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발생이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되는 속도는 좀 느린 상황”이라며 “그만큼 수도권 중심의 폭발적인 코로나19 집단발생이 N차 전파를 많이 만들어냈고 방역관 리망 밖에서 조용한 전파도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었다. 지난 3일 이후 9번째 100명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중순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267명→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을 보이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환자 발생 급증세가 멈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자체별로 볼 때 서울·경기·광주만이 두 자릿수 발생이고 신규 환자 발생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 “동시에 위중·중 환자 발생 추세가 완만하다는 점도 매우 고무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철저히 참여하고 특히 고위험시설 운영자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이해와 희생 덕분이다. 감사하고 동시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또한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소중한 경험이자 교훈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풀 이후 2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차 유행을 억제하지 못하는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강한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껴서도 될 부분”이라며 “감염병이 통제 수준을 넘어 확산된 후 억제하기까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내와 피해가 수반된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내년 추석 연휴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행하게 될 올해와 달라진 모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권 부본부장은 “희망하기는 연구개

발(R&D) 그리고 수급 노력의 성과로 최소한 내년 추석은 올해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며 “올해 추석에 한해서는 예년의 명절 풍경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개개인의 안전, 더욱이 고위험군의 감염예방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는 방역의 연장선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돼 차분하게 완전한 접종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힘들더라도 감염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더 나쁜 상황이기에 그러한 나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좀더 견디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서선욱기자

“쌀 30만 포대 싼값에 공급” 거짓말로 5억 가로챈 50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쌀 30만 포대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관련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의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6일 서울 모 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20kg 1포대당 3만6000원으로 쌀 30만 포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미국종합처리장 3곳에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돈을 주면 쌀 30만 포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B씨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받으면 자신의 사업 자금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0kg 1포대당 쌀 가격은 4만 원 이상이였다.

재판부는 “쌀을 시세보다 낮은 단가에 공급할 의사가 능력에 전혀 없었음에도 서류 등을 보여주며 B씨 회사를 안심시킨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크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가로챈 금액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범행 경위,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서 도로 건너다 승합차에 치인 40대 숨져

광주 도심 대로를 건너던 40대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삼촌동 편도 4차선 도로를 건너던 A(48)씨가 B(30)씨의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전방 주시 소홀 또는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 부린 30대 구속

제주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35)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 위반자 총 12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제주 시내 한 병원 로비에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입장하던 중 발열체크를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지난 5월 26일부터 8월말까지 총 203건의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호텔 주차 벤츠에서 돈시계 등 7천만원 도둑맞은 20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호텔에 주차한 고급 승용차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호텔 주차장에서 A(23)씨가 “차량에 있던 현금과 명품 시계가 없어졌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차량은 벤츠 승용차로 당시 송도의 호텔 주차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놓아둔 현금 4000만원과 3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호텔주차장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지난 6일 오후 같은 장소에 남성 3명이 있었던 것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호텔 주변 CCTV 분석과 함께 A씨와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무한그룹발 순천 집단감염 주범은 ‘마스크 미착용’

지역 최다 감염 경로

전남도는 8월 한 달간 전남지역을 강타한 서울 무한그룹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줄면서 전남지역

코로나19 지역감염도 이날까지 5일째 단 1명에 그친 가운데, 지역 최다 감염 경로는 무한그룹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지난 2월 나주에서 첫 발생 이후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61명으로 지역감염자 130명, 해외유입은 31명이다.

무한그룹발 집단감염의 경우 첫 확진자인 순천 70대 여성이 방문판매업 종사자며, 2차 감염자인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자로서 이들의 활동반경이 광범위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 전파 경로는 방문판매 18명과 A휘트니스 22명, B휘트니스 23명이었다.

주목할 점은 휘트니스를 통한 감염자가 45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몰려 격한 운동을 하는 휘트니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함께 운동을 하다 무더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한 때 대유행 우려를 낳았다.

김정환기자

광주서 목욕탕 방문 확진자 접촉 2명 추가 감염...전파 우려

광주 426번째 환자 지난달 29일 목욕...다방면 역학조사

다중이용시설인 광주의 한 목욕탕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목욕탕이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

난 6일 지역 42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북구 우산동 주민인 A씨(50대 여성)와 접촉한 2명이 이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북구 오치동 석정사우나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날 확진된 2명(446·449번째 환자, 오치·두암동 거주 50대 여성)은 석정사우나에서 A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A씨가 사우나를 방문한 시간대 전후로 40여 명 가량이 찾아 목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우나 관련 시민 24명

을 검사했다. 사우나 밖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날 사우나를 찾아 역학조사를 벌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후 석정사우나를 찾은 시민은 곧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인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